

## 心理的事實과 心理現象의 次元

鄭 良 殷

서울대학교 心理學科

인간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물질의 세계에 대한 의문에 못지 않게 知的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되어 왔다. 그러나 이 두 물음은 가장 기본적인 성질의 물음이며 손쉬운 해답을 얻기 어려운 물음이다. 어쩌면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답이 어렵다고 체념하여 포기 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금동서를 통하여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는 知的 노력의 결과에서 수많은 학문이 탄생하고 발전했다.

사물의 세계가 무엇이냐라는 물음은 오늘날 완전히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에 접근하는 방법에서는 학자들 사이나 학문영역간에 일치된 견해가 이루어져 自然科學이란 종합과학속에 통합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 문제의 제기방식이나 또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에서 自然科學과 같은 통일된 학문적 근거의 통합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학문들은 각각 그 나름대로의 입장과 방법에 따라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心理學도 이런 학문의 하나이다.

心理學은 인간에 관한 事實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통하여 수집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려는 입장을 취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心理學을 事實에 관한 학문이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물음은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이 물음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학문이 없을 수 없다. 이런 학문이 人間學<sup>1)</sup> ( Anthropology )이다.

註 1) Anthropology란 원래 철학적으로 人間學이며 現在의 人類學과 구별되는 바가 있다.

Sartre( 1939 )는 人間學을 “인간의 本質과 인간적 조건을 규정하려는 학문”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의 견해는 사실의 축적만으로는 本質에 도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리학에서 인간에 관한 타당한 사실들을 아무리 많이 수집 축적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으며 그런 해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人間學뿐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心理學은 人間學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심리학에서 얻은 사실에서는 인간에 관한 蓋然의인 命題만이 가능하며 보편타당한 인간존재에 대한 해답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학에서 얻어진 인간에 관한 사실들은 人間學에서 규정한 인간의 本質에 의해서만이 비로서 의미있게 해석되고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심리학의 限界性에 관한 논의는 이 現象學的 사상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일찌기 Kant( 1781, nach Ausgabe A, p. 375 )는 合理的心理學( die rationale Psychologie )의 불가능을 주장하였다. 학문은 思考에서 이루어진다. 사고하는 자가 없으면 학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sup>2)</sup> 라는 命題가 학문을 있게하는 가장 근원적인 명제이다. 이때 생각하는 주체인 “나”가 심리학의 대상이고 이 사고하는 “나” 또는 존재( denkenden Wesen )를 추구하는것이 합리적인 심성에 관한 학문( die rationale Seelenlehre )이고 合理的心理學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때 이미 그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나는 생각되어지는 그 무엇인 対象( Objekt )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변질된 “나”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순수한 “나”가 아니다. 또한 思考없이 “나”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순수한 “나”의 존재에 관한 학문인 合理的心理學이 성립될 수 없다. 사고되는 대상을 제외하고 사고하는 작용이나 과정을 관찰한다면 이는 內的경험의 관찰이다. 이런 관찰의 결과는 “나”의 작용이나 과정에 관한 관찰은 아니다. 그러나 이때 관찰된 작용이나 과정에 관한 심리학이 있을수 있다.

---

註 2 ) Ich denke ....

이점에서 合理的心理學은 불가능하지만 經驗的心理學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 관찰되어지는 것은 “나”의 작용이나 기능이며 “나”의 本質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들 작용이나 기능을 “나”라는 존재에 관한 일종의 生理學이라 할 수 있다. 환언하면 경험적 심리학은 생리학이며 심리학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心理學을 生理學의 영역으로 취급하는 생각이 나왔으며 Auguste Comte 가 학문분류에서 生理學다음에 社會學을 넣고 心理學을 제외시킨 이유이기도 하다.

心理學의 限界性이나 存立에 관한 논쟁은 필연적으로 그 반대되는 立場으로부터 반박을 받게 마련이다. 우선 事實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의 心理學이 인간의 本質에 도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 반론은 인간이 무엇이나라는 물음 자체가 해답을 가능하게 하는 물음의 양식이나 하는 것을 반성하는데에서 시작된다. 이 물음의 해답은 事物이란 무엇이나 라는 물음이나 神이 존재하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과 마찬가지로 虛像 (Schein)의 二律背反 (Antinomie)에 빠지고야 마는 해답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즉 이들 물음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해답과 반대되는 해답이 謬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그런 해답이다. 따라서 반대 해답도 얻어진 해답과 마찬가지로의 비중을 갖는다. 그러므로 그 어느 해답도 真理가 아닌 虛像에 지나지 않는다. 神이 존재하느냐라는 물음에 대하여 肯定的인 허상적대답을 믿고있던 인간들이 그 반대되는 否定的대답에 직면하였을때 얼마나 당황하고 비참했던가 하는것은 역사적 사실로 지적되고 있다. 처음 Copernicus가 地動說을 주장하며 神의 후예로서 신성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地球가 우주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의 상실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또한 Darwin이 進化論을 제창하여 인간도 생물의 계통발생적인 進化의 산물임을 입증하여 원숭이와 유사한 조상에 그 뿌리가 시작되었다는 이론을 들었을 때 신성한 존재로서의 인간상은 여지 없이 이그러질 수 밖에 없었다. 뿐만아니라 Freud가 인간을 욕망의 덩어리로 태어나고 또 그 욕망이 性的인 것임을 주장했을 때 神의 존재를 믿고 의지했던 인간의 虛像은 여지없이 파괴되었다. 사람들은 이 3가지 사실을 神의 존재에 대한 부

정적인 虛像에 입각한 科學의 발달이 인간에게 갖다 준 가장 준엄한 인간성의 상실이라 지적하고 있다.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도 이와 마찬가지로. Skinner ( 1971 )는 인간이 自尊的인 權威意識에 근거한 자기방어의 방패에서 탈피하고 인간존재의 질서의 법칙성을 인정할때 비로서 인간이해의 가능성이 나타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해답은 그 어느것이냐 인간 스스로가 갖는 自尊的인 의식에 의하여 왜곡된 虛像的인 해답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인간을 合理的인 존재라고 해석하든 非合理的인 존재로 해석하든 그 모든것이 허상적인 대답이다. 그리하여 Sartre 가 지적하듯이 哲學的인 人間學은 아직 인간에 관한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인 규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心理學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 이 現象學者가 지적하듯이 인간에 관한 事實을 아무리 축적하더라도 인간이해가 불가능하다면 心理學이 학문으로서의 근거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事物에 관한 事實들을 추구하는 학문인 自然科學에서는 오늘날 그 학문의 근거나 타당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自然科學에서 事物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관한 해답이 풀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이 물음은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二律背反적인 虛像的인 해답만을 가능하게 하는 물음이다. 그러므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自然科學에서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自然科學은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발전하고 事物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학의 발전은 二律背反적인 해답이외에는 불가능한 물음에 대하여 그 어느 한쪽의 대답에서도 생길수 있는 집착에서 탈피하고 事物에 관한 엄밀하고 타당한 事實만을 수집하여 체계화하는 학문적 태도를 견지한데에서 원인을 찾을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해에서 心理學은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직접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관한 事實들을 가장 엄밀하고 타당하게 수집하고 그 事實들을 체계화하려고 한다.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심리학도 이같은 접근이야말로 어떤 편견에 사로 잡히지 않는 인간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 心理的인 事實이란 " 主觀的

意識이 우리에게 提示하는 그런 直接經驗" 들이다. 그리하여 Wundt ( 1921 )는 心理学을 " 主觀意識이 우리에게 提示하는 直接經驗的 事實들을 그 相互關聯性에서 探求하는 學問" 이라 정의 하였다. 이는 곧 인간에 관한 事實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인간이해에 접근하려는 학문이 心理学임을 지적한것이다. 철학자들은 事實추구만으로서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心理學者들은 그와 반대의 입장이다. 이 두 상반된 입장도 二律背反的인 虛像에 빠져버리고 가부를 결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일지 모른다.

心理学이 事實을 탐구하는 학문이라 한다면 그 사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ant는 사고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관찰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合理的 心理学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Aristoteles는 心理学을 心性( Seele )에 관한 학문이라 정의하였다. 그러나 心性자체를 관찰할 수 없는 것은 사고하거나 지각하거나 욕구하거나 감정의 대상을 갖지 않는 순수한 "나"를 관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점에서 心理学이 心性의 학문이 될수 없는 것은 Kant가 合理的心理学을 부인한 논거와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또한 心理学을 心性에 관한 학문이라 정의 하는것은 인간이 무엇이나 라는 기본적인 물음과 마찬가지다. 이 물음은 철학적으로 二律背反적인 虛像的 대답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事實을 탐구하는 心理学의 영역을 초월한다. 그리하여 心理学이 心性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心理学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영국의 경험론자들에 의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외적사물에 관한 외적지각이든 의식내부 상태에 대한 내적지각이든 心性자체가 아니더라도 의식속에 나타나는 것( Erscheinung ) 들에 관한 법칙을 연구하는 독자적인 학문영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심리학에 막대한 영향을 남긴 聯想法則은 心性의 過程에 관한 법칙으로 확립되었다. Brentano ( 1874 )는 의식속에 나타나는 心性의 작용을 現象이라 정의하였다. 따라서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心理学이 心性의 現象에 관한 학문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심리학을 心性의 現象으로 정의하는 입장은

自然科学을 事物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事物의 現象에 관한 학문이라 규정하는 입장과 원래 동일하다. 경험론자들은 개념정의 보다는 事實을 탐구하는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었으므로 심성의 현상이나 작용이 무엇인가하는 것에 관한 개념규정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다만 심성의 현상에 관한 事實과 법칙을 추구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 영국의 경험론자 중에서도 심리학을 심성의 현상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으로 규정한 사람은 John Stewart Mill이었다. Mill의 입장은 후에 Husserl에 의하여 소위 心理主義 (Psychologiam)라는 비난과 더불어 많은 비판을 당하였고 또 Lange에 의하여 그의 唯物論史에서 "心性이 없는 心理学" (Psychologie ohne Seele)이라는 비꼬임을 받기도 했다.

心理学의 정의에 대한 논의에서 Wundt는 어느정도 초연한 입장을 취한다. 그는心性에 관한 정의를 철학적으로 엄밀하게 규정하는 것보다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인다. 主知主義의 인形而上學的인 입장에서心性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가 모순에 빠지게 마련이지만 의식속에 주어지는 경험적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런 경험적 사실의 과정을 심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경험과학으로서의 심리학에 보다 확실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는 이같은 입장을 "aktuell"이라 불렀다. 따라서 그의 심리학은 그가 명명했듯이 경험적심리학 (die empirische Psychologie)이다. Kant도 合理的의心理学 (die rationale Psychologie)의 성립은 부인하였지만 경험적심리학의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경험적심리학에서 얻는 지식은 경험주체인 "나"의 변화된 형태에 관한 것이어서 육체를 갖는 "나"에 관한 지식이므로 生理學的의 일종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원래 생리학자였던 Wundt는 그의 감각실험에서 인간의 감각적 의식경험은 신경생리의 기전으로서는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과정이 있으며 이는 오로지 인간의 의식이 갖는 독특한 영역임을 주장하였다. 두눈의 망막의 평면위에 상을 맺은 시각자극이 3차원의 입체로 의식되는 과정이나 사물의 표면에서 光沢을 경험하는 과정등이 그 예로서 철저하게 규명되었다. 그리하여 Wundt는 경험적심리학이 생리학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속에 주어지는 경험적 사실의 학문으로 독자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점이 바로 Wundt로 하여금 心理學의 비조로 삼는 이유이다. 그는 Heidelberg 대학의 생리학교실원으로서 고참이었지만 인간의 감각경험을 생리적인 기전으로 해석하지 않고 의식과정으로 설명하려는 태도를 견지하였으므로 Helmholtz의 후계자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Leipzig에서 심리학이란 새로운 학문분야를 개척함으로써 생리학자로서의 실패가 보상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영국의 경험론자인 John Stewart Mill이나 독일의 생리학자였던 Wilhelm Wundt가 心性에 관한 형이상학적인 개념규정에 구애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事實을 추구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심리현상이나 심리과정에 관해서 얻은 사실적인 지식이 인간이해에 공헌할 수 있는 독자적인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의 성립을 입증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하여 심리학에 대하여 부정적인 Kant의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시대에 학문분류를 시도했던 Comte는 心理學을 그의 분류속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경험론적 Mill의 영향을 받은 Spencer는 生物學과 社會學의 사이에 心理學을 삽입하여 학문의 체계를 분류하였다. 그러나 철학에서는 事實로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존재하는 사실 자체를 규명하고 그의 개념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自然科學이 事物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心理學이 心性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心理現象( das psychische Phänomen)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때 이現象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철학에서는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Brentano ( 1874.[ 1924 ], p.124 )는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한 최초의 학자였다. 그는 " 모든 心理現象은 中世紀에 스코라哲學者( Scholastiker )들이 對象의 志向的( 또는 心的 )內在라고 불렀던것으로特徵지어지며 또 애매한 점이 전연없는 표현은 아니지만 內容과의 관계, 또는 對象에 대한 方向性( 이때 對象을 實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된다 ) 또한 內存的인 對象性이라 불리워지는것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 라고 기술하고 있다. 철학적으로 아주 난잡한 표현이지만 그의 주장은 의식속에 주어지는 경험적 사실의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과의 관계 또는 그 내용에 指向하는 과정이 心理現象이라는 것이다. 예를들면 빨간색을 보았을 때 그 빨간색은 경험적 사실의

내용이며 그 색을 본다는 사실이 心理現象이다. 타는 냄새가 아니라 그 냄새를 맡는 과정이 心理現象이다. 마찬가지로 단맛이 아니라 단맛을 맛보는 것, 종소리가 아니라 소리를 듣는 것이 심리 현상이다. 무엇을 원하거나 욕구하고 어떤 느낌을 갖는 것이 또한 心理現象이다. 그리하여 그는 心理現象은 表象되어진 것 즉 경험적 사실들의 내용이 아니라 表象하는 과정이 心理現象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견해는 Wundt ( 1921, p.9 )에서 心性을 心理過程 ( psychische Vorgänge )이라 규정한 것과 일치한다. Brentano는 철학자인 만큼 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경험적 사실을 형성하는 내용들은 그 존재의 근거가 의심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런 내용들을 가능하게 하는 心理現象은 의심할 수 없는 自明性을 갖는 것이라 주장한다. 우리가 지각하는 色, 音, 味, 嗅 등은 實在性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단지 인간의 머리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色을 보고있고 音を 듣고있고 味를 맛보고 있으며 嗅를 냄새 맡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의심할 수는 없다. 이같은 사실들은 眞實한 것으로 知覺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心理現象의 實在의 根柢를 의심한다는 것은 완전한 회의론에 빠지고 인간이 지식을 얻는 認識의 근거가 사라진다. 心理現象은 자명한 것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관찰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內的知覺에 의하여 인식될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Brentano는 心理現象은 표상하는 과정이고 志向的인 內在이므로 對象과의 관계로서 존재한다. 이때 心理現象이 志向하는 대상은 의식속에 주어진 경험적 사실의 내용이다. 즉 色, 音, 味, 嗅와 같은 것들이 心理現象의 對象이며 이는 外的知覺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고 의식속에서 관찰될 수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그에게서는 對象 ( Gegenstand ) 이란 의식속에 존재하는 色, 音, 味, 嗅등이며 이들을 가능하게 하는 즉자적 ( an sich )인 現存 ( Dasein )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Brentano의 사상은 現存否定的의 사상이다. Brentano ( 1874 )의 1924年版 편집인 Oskar Kraus ( p. xv111 )는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 Sie setzen kein Dasein .... Gerade die Enthüllung dieses ihres durchweg negativen Charakters, trotz ihrer affirmativen sprachlichen Form, ist eine der wesentlichsten Entdeckungen Brentanos."



이 논평은 Brentano가 심리현상과 의식속에 있는 그 심리현상이 지향하는 대상만을 인정하고 그 이상의 존재를 부정한 최초의 철학자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Brentano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Kant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Kant는 物自性(das Ding an sich)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物自性を 인식하는 것이 곧 眞理認識이란 전제에서 출발했다. 이같은 진리인식은 경험에 의해서는 얻어질 수 없으며 경험을 초월(transzendental)한 理性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상을 발전시켜 진리인식의 순수이성을 비판했었다. 그러므로 그는 眞理認識의 대상이 되는 現存을 인정했다. 그러나 Brentano는 이 現存을 부인한 최초의 철학자였다.

Brentano의 이같은 사상은 心理的 事實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심리현상은 의식속에 주어진 경험적 내용이 아니라 이 경험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그 대상에 志向하는 심리작용이라 정의한다. 심리현상에 관한 그의 정의는 心理学연구의 방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外的인 事物의 물리적인 자극에 대응하는 의식의 내용을 규명하는 것이 심리학이 아니라는 관점이 그의 사상에서도 출된다. 物理的 刺戟과 心理的 反應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소위 關係理論(Beziehungslehre)에 대한 전면적인 반론이다. 사실 어떤 전자파를 제시했을 때 빨간색, 파란색, 또는 노란색을 본다는 것은 색의 물리적 속성을 연구하는데는 중요하지만 심리를 연구하는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보색이나 혼색 또는 색의 잔상현상등이 심리적 특성을 제공하며 거기서 얻는 법칙이 바로 심리적 법칙이다. Merleau-ponty(1945)가 지각의 항등현상비판에서 지적했듯이 노란색이 노랗게 보이는 것은 어떤 한정된 광도의 상황에서이다. 광도가 지나치면 노란색보다는 광택을 지각하고 또 광도가 낮아 어두운 곳에서는 흰색으로 지각된다. 그렇다면 반사광의 파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경험되어진 사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과연 노란색이란 말이 가능하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 축소막(縮小幕)속에서는 항등현상이 사라진다. 이같이 동일 자극에 대응하는 반응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關係理論에서 탐구하려는 物理的 現存과 心理的 경험내용간의 一定한 關係란 있을 수

없고 또 그런 관계가 있다손 치더라도 인간의 심성자체가 하는 내용은 해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Brentano가 지칭하는 心理現象이나 Wundt가 주장하는 心理過程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경험내용을 통하지 않을 수 없다. 철학적으로는 Brentano가 주장하듯이 內的知覺에 의하여 심리현상 또는 心理作用을 直觀( Anschauung )하고 경험내용을 括弧( Einklanmerung ) 속에 넣는다고 하지만 Brentano가 二次的( sekundär )라고 했고 또 Aristoteles가 副隨的( neben bei )이라고 지적한 의식속의 경험내용을 근거로 하지 않고서는 心理現象 또는 心理作用( psychische Tätigkeit )도 탐구하기 곤란한 점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Wundt나 John Stewart Mill과 같은 실제적인 연구가들은 경험적사실의 내용을 토대로하여 心理現象에 관한 假說을 도출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여 一般化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보다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니는 가설에 도달하는 방법에 의존한다. 현상학자들은 이때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은 일종의 판단과정이며 경험내용을 근거로 하는 판단은 心理現象 또는 心理作用자체를 통찰하게 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므로 심리현상의 직관에는 판단중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그들은 경험내용을 접어놓고 心理現象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방법을 현상학적 환원이라 한다. 그리하여 현상학적환원에서 기술된 心理現象을 토대로 구축할때 비로소 타당한 심리학의 법칙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철학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그 방법이 심리학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소위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지식이 心理法則을 얻는데 아무런 공헌을 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심리적 사실을 형성하는 것을 경험내용으로서 의식속에 존재하는 대상들과 이 대상들에 志向하는 심리현상의 두가지를 모두 포함시켜 심리학 연구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이때 의식속의 대상들은 외적지각이든 내적지각에 의해서든 実存性을 가지지 않는 것들이며 심리현상에 관한 법칙성을 찾는 토대가 되지만 그 자체는 止揚( Aufheben )되어야 하는 그러한 성질의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심리학이 연구하는 심리적사실에 관한 검토를 앞에서 시도하였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같은 심리적사실들을 분류하는 문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경험내용으로서의 의식내에 존재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갖는 심리현상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고 덜 유사한 것들과 구별하여 분류하는 것은 심리적사실을 이해하고 또 실증적인 연구를 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심리현상들의 분류는 심리현상이 지향하는 대상의 성질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현상이 대상에 지향하는 양식에 따라 분류된다. 그러므로 동일한 의식 속의 경험내용에 대하여 여러가지 심리현상의 지향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심리현상의 분류는 심성의 분류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일찌기 심성을 처음 분류한 사람은 Plato였다. 그는 심성을 欲望하는 심성 ( *begierlichen* ), 憤激하는 심성 ( *zornmutigen* ), 그리고 理性的인 心性 ( *vernunftigen* ) 의 3개 부분으로 구별하였다. 그리하여 이 심성의 3부분을 국가에서 사회계층을 분류하는데 유추적으로 적용했다. 즉 욕구하는 심성은 국가의 밑받침이 되는 생산에 종사하는 계층이고, 분격하는 심성은 국가를 수호하는 무인들의 계층에 지배적이고, 이성적인 심성은 국가의 통치계층의 특성이라 설명했다. Aristoteles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을 식물성기능 ( *vegetativen* ), 감각적기능 ( *sensitiven* ), 지적기능 ( *intellektiven* ) 으로 구분하고 식물성기능은 모든 동식물과 공유하는 기능이고, 감각적기능은 동물과 공유하며, 지적기능은 인간에게만 고유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심성을 이루고 있는 것은 뒤에 두기능이며 이기능들은 심리현상으로 思考와 欲求로 구분된다는 二分法을 주장했다. Aristoteles의 二分분류는 Kant가 Plato처럼 心性을 三分하는 입장을 취한 때까지 구라파의 심성분류의 원류들이라고 있었다. Kant는 心性을 知 ( *Erkennen* ), 情 ( *Fühlen* ) 意 ( *Wollen* ) 로 구분하였다. 이 3가지는 서로 다른 것으로부터 유추할 수 없고 또 공통된 근원을 갖고 있지 않는 心性의 영역이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의 심성이 갖는 知的能力的 전개를 그의 "순수이성비판" ( *Kritik der reinen Vernunft* ) 에, 感性能力을 "판단력비판" ( *Kritik der Urteilstkraft* ) 에서, 意知的能力的 원리를 "실천이성비판" (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에서 비판검토하였다. Kant의 心性에 관한 三分法이 나온 다음에는 Aristoteles의 二分法의 전통은 그 영향력을 상실했으며 현재 심성을 知·情·意로 구분하는 경향이 압도적이다. Kant 이후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心性의 내용을 분류하는 노력을 했지만 이들은 心性(Seele)과 心理現象(Psychisches Phänomen)의 개념적 정의를 내리지 않은 입장에서 心性分類를 했다.

Brentano는 그가 내린 心理現象에 관한 개념적 정의에 따라 心理現象을 分類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心理現象을 知·情·意로 나누는 것을 반대하고 知的 측면을 表象하는 과정과 판단하는 과정으로 나누고 情과 意를 동일한 유목으로 통합하는 三分法을 취하였다. 그는 Kant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던 상호 도출할 수 없는 심성내용을 독립된 유목으로 취급한다는 원리 보다는 의식속의 대상에 대한 지향의 양식에 따라 심리현상을 구분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心性 또는 심리현상을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가 하는 것은 실험적으로는 종속변인을 어떻게 서로 구별하느냐 하는 문제로 낙착된다. 그러므로 심리적 사실의 분류는 오히려 심리학적 실험의 결과에서 그 타당성을 찾는 것이 보다 근거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심성이나 심리현상의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보다는 知的인 기능이나 情的인 기능 또는 意的인 기능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 실제로 인간이해에는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에서 의식내에 있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이들 기능이 동시에 지향한다고 생각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심성을 분류하는 사람들은 知·情·意的 기능들이 類層(Schichten)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일찌기 Plato가 欲求의인 것이 下層이고 憤激의인 것이 中層이고 理性的인 것이 上層이라는 견해를 주장했다. 그 후 많은 사상가들이 意的인 것이 心性의 가장 밑바닥의 층을 이루고 그 위에 情的인 心理的 층이 있고 知的인 것이 가장 윗층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Freud가 Id를 가장 기본적인 인간존재의 영역이라 가정하고 이 Id에서 Ego가 발달하며 후에 Super ego가 형성된다고 주장한 것도 의지적욕구가 기본적인 심성의 층이고 그 위에 현실원리의 知的층이 있고 상층에 행위의 규범인 도덕적판단의 기준인 良心의 층이 있다는 심성내용의 유층개념이 기본에 깔려있다. 성격심리학자인 Lersch(1956)는 성격을 내기저층(endothyme Gr-

ound) 과 상층( Oberbau )로 구분하여 기저층에는 생활감정, 자기감정, 정감, 및 욕망등이 있고 상층은 의지와 지적인 기능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성격에 관한 유층이론( Schichtentheorie )를 정립하였다. 心性을 그 분류내용에 따라 유층적으로 그 구조적인 특성을 구성하는 것과는 달리 心性자체를 유층으로 나누려는 시도도 있다. 이견해에서는 心性을 知·情·意 등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心性의 영역이 두가지로 구분된다는 견해이다. 이런 사상을 가장 선명하게 주장한 사람이 철학자인 Bergson ( 1889 )이다. 그는 의식의 시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의식을 고정된 존재들로 구성되는 영역과 그런 내용이 형성되기 이전의 영역을 구분하였다. 이 후자의 영역은 시간적으로 전자의 영역에 앞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고정된 내용을 갖는 의식의 영역을 의식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세계이다. 이는 일상생활이 고정된 의식내용에 주목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Bergson은 "생활에 대한 주의" ( attention à la vie )라 불렀다. 그러나 이 의식의 영역은 원초적이고 직접적으로 주어진 의식의 영역이 아니다. 이 영역에 앞서 직접적으로 주어진 ( la donnée imédiate de la conscience ) 의식의 영역이 있다. 이 영역을 그는 "持續" ( durée )라 불렀다. 고정된 의식속의 경험적 내용들은 이 지속의 의식영역속의 어떤 특정한 것에 주의하므로 구성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의 의식영역은 이질적이고 연속적이며 고정된 내용을 가지지 않는 의식의 유동만이 있는 영역이다. Bergson의 이론은 의식을 기초적인 지속의 영역과 그에서 구성된 상층영역으로서의 고정된 경험내용으로 형성된 영역으로 나누었다는 점에서 심성에 관한 일종의 유층적인 견해라 해석 된다. Bergson의 지속은 의식의 직접적인 소여로서 경험내용을 구성하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Brentano의 심리현상과 유사한 바가 있다 하겠으나 지속은 대상에 대한 지향성이 없으며 의식이 존재한다는것 이외에는 직접소여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고정된 내용을 지속에서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주의" ( attention )를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서 Merleau-ponty와 같은 현상학자들은 Bergson의 직접소여에 대한 접근을 비판하고 있다.

심성을 그 분류된 내용에 따라 유층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은 심리적인 사실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유리한 것만이라 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심성을 知·情·意로 나누고 그들이 유층적으로 심리적사실이 구성되고 있다면 知的의 과정이 없는 情 또는 意的 심리작용이 있어야 하고 또 知와 情이 없는 意的인 심리현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식속의 대상에 대한 지향에는 그 어떤것에나 知·情·意的 심리현상들이 함께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사실과 더욱 부합된다. Kant도 이점에 유의하여 심성이 지·정·의로 나누어지지만 그 원리의 인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이 세 기능 또는 능력은 인식적인 바탕위에서 구분되며 이 인식적 바탕은 지적인 성질의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知的인 바탕이없는 감정이나 의지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겠다. 뿐만아니라 유층이론은 심성의 분류된 내용을 단일화하는 경향을 초래할 가능성을 초래한다. 즉 知的의 능력 또는 기능은 모든것이 동질적이고, 情的의 기능은 모든 감정적인 것에 동질적으로 작용하고 또 意志의인 것은 그 무엇이나 동질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知的의 능력이란 생각된 심리현상들도 여러가지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 지각하고 表象하는 知的의 기능과 判斷하고 사고하는 知的의 기능은 知와 情 또는 意를 구분하는 것에 못지 않는 구분이 가능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Brentano가 心理現象을 知·情·意로 나누지 않고 表象하는 과정과 判斷하는 과정, 그리고 情·意的인 것이 합친 과정으로 3분하는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心性을 분류하여 유층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그 타당성이 의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유층이론은 知的의 과정을 높은 구조층에 위치시키므로써 심리현상을 지나치게 知的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초래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심리적사실의 내용과 심리현상의 분류에 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심리적사실을 이루고 있는 심리현상 또는 심리작용과 의식속에 주어진 대상과의 관계를 심리현상의 분류와 관계시켜 검토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또한 심리현상과 상황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다. 심리현상은 진공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심리현상은 인간의 존재적 상황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같은 상황적 조건을 크게 나누면 사물의 세계의 상황과 인간적 세계의 상황이다. 인간을 둘러싼 세계는 사물과 인간으로 나누어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현상이나 의식속의 경험적 내용은 이 상황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따라서 심리학의 분야가 구분될 수 있다. 이 두가지 문제에 관한 검토는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말할 수 없다. 첫번째 심리작용과 그 작용이 지향하는 의식속의 대상과의 관계는 심리학연구결과를 정리하는 골격적인 틀을 제공한다는데서 중요하다. 그리고 상황적조건에 따른 심리적 사실의 특성은 심리학자체의 학문적 대상과 분류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심리현상과 그것이 지향하는 의식속의 대상들과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사실들의 구조적 골격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골격이 이루어져야 비로서 이 양자간의 관계에 관하여 심리학에서 실증적으로 관찰한 내용들이 의미있게 정리되고 체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검토된 심성의 분류도 심리적 사실들의 구조적 특성을 해명하려는 노력이다. 心性을 知·情·意로 나누는 것은 관찰된 심리적 사실들을 이 3개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심리적 사실의 구조적 골격을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유층적인 구조론에서는 知·情·意의 각 기능들을 해당되는 심성의 층에 속하는 동질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한다. 그러나 이들 기능들은 그 자체가 상당히 이질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 즉 동일한 知的기능으로 간주되는 심리현상 사이에는 거의 知的기능과 情的 또는 意的기능과의 사이의 차이 만큼의 이질적인 심리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리현상은 그 속성에 따른 분류가 가능할 뿐 아니라 분류되어진 심리현상의 각 기능들이 작용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사실의 차원의 문제이다. 즉 심리현상이나 심리작용을 이루는 知·情·意등은 단일 차원이 아니라 여러 차원으로 대상에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심리현상과 의식속의 대상과의 관계나 분류되어진 심리현상들 사이의 상호관계의 문제는 심리현상의 분류에서보다 오히려 심리적사실들의 차원에서 더 명백히 부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심리적사실의 구조적 골격은 심리현상의 분류와 심리적사실의 차원이란 두개의 축의 상호교차로 이루어 진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심리적사실의 구조속에서 비로서 심리학에서 관찰된 사실들이 의의있게 정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리적사실의 차원을 밝히는 것이 그 사실들의 분류보다 심리학에서는 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철저하지 못한것 같다. 이는 심성의 분류와 그 분류의 기준의 문제에 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심리적사실의 차원을 검토하는때는 知的기능보다는 意的기능 즉 動機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심리현상이란 대상에 지향하는 심리작용 (Psychische Tätigkeit)이며 Wundt가 지적하듯이 심리적과정 (Psychische Vorgänge) 이기 때문이다. 知·情·意중에서 작용성과 보다 가까운 거리가 있는 심리현상은 意的인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된다. 意的인 動機的인 심리작용에 관하여 Schutz (1932) 는 目標動機 (um-zu Motive) 와 因果動機 (weil Motive) 로 나누고 있다. Raymond Aron은 Schutz의 주장을 이어받아 目標動機를 motive라 불렀고 因果動機를 mobile라 불렀다. 目標動機는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에 도달하거나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因果動機는 신체생리적인 결핍이나 애정의 결핍과 같은 원인에서 그 결핍상태가 원인이 되어 그런 상태에서 탈피하려는 動機이다. 즉 Schutz는 意的인 심리현상을 2개 차원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심리학의 관찰결과에서는 이 두 차원 이외에 또 하나의 動機차원을 구분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目標動機와 因果動機이외의 동기가 있다는 것에 주목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것을 체계화한 사람은 Berlyne(1960) 이라 하겠다. 그는 探索動機를 동기이론가들이 주장한 추동감소 (drive-reduction) 동기와 구별하였다.

그의 探索動機는 또한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는데서 생긴 동기도 아니다. 다만 주어진 상황에서 유발되는 동기이다. 이런 의미에서 탐색동기를 탐색행동에만 국한 시키지 않고 널리 해석하면 상황에 의하여 유발되는 동기라 하겠다. 따라서 인간이 놓여진 인간적 조건에 의하여 유발되는 모든 동기를 目標動機나 因果動機와 구별하여 誘引動機 (incentive motivation) 이라 할 수 있다.



동기에 관한 심리학의 이론가들이나 실험가들은 誘引動機를 반드시 여기에서 사용하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동기에 관한 연구가 因果動機의 이론과 관찰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H. F. Harlow (1953)도 기원을 유기체속에서 찾을 수 있는 동기(동질정체적 동기)와 외적대상에 그 기원이 있는 동기(인지적동기 또는 탐색동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 전자는 Schutz의 원인동기이고 후자가 여기서 제시하는 유인동기라 하겠다. 대체로 심리학 그중에서도 미국심리학에서는 목표동기에 관해서는 그다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Tolman (1932)이 목표행동에 관한 분석을 했지만 목표동기는 기대, 예측, 인지와 같은 관찰하기 힘든 변수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리적 사실을 심리현상에서 검토하면 동기적인 심리현상은 目標動機, 誘引動機 및 因果動機의 3개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동기적 심리현상이 이 3개 차원으로 구분된다는 것은 이에 따라 知的심리현상이나 情的심리현상도 3개 차원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또한 의식속에 있는 대상에 대한 志向的 内存(intentionale Inexistenz)으로서의 심리현상 또는 심리작용이 3개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 3개 차원을 目標的次元, 誘引的次元 및 因果的次元으로 이름 붙인다. 그리고 심리현상의 이 3개 차원이 유층(Schichten)을 이룬다고 생각된다. 이점에서 Maslow (1954)가 동기의 단계설을 주장한 입장의 타당성을 엿볼수 있다. 그의 단계설에서 生理的욕구와 安定的 욕구는 여기서 말하는 因果動機에 속하고 愛情的 욕구와 自尊心의 欲求是 誘引動機에 自己實理의 欲求是 目標欲求에 속하며 이들은 유층을 이룬다고 해석된다. 이에 따라 知的 및 情的인 심리현상도 각각 그 층에 해당되는 차원에 따르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해석된다. 이렇게 보면 심리현상이 유층을 이루는 것은 그 자체를 분류한 知·情·意를 유층으로 해석하려는 철학적 입장이나 Lersch와 같이 endcthyme Grund와 Oberbau로 知·情·意를 분류하여 유층적으로 성격을 설명하려는 이론은 잘못이라 지적 할수 있다.

위에서 심리현상의 3개 유층차원을 가정하였다. 이 각 차원에서의

각 심리현상들 사이 및 심리현상과 의식속의 대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검토함으로써 심리적사실의 구조적 골격에 대한 해석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심리현상의 3개 차원에 관한 접근은 철학과 심리학이 그리고 관념론과 경험론이 서로 상반되는 방향의 접근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철학과 관념론에서는 목표적차원에 관한 사색을 주축으로 하고 그에 부수하여 유인적차원이나 인과적차원을 검토했다. 이에 반하여 심리학과 경험론에서는 오히려 인과적차원에 관한 실증적인 접근에서 출발하여 유인적차원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목표적차원의 문제는 그렇게 철저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철학적인 인간해석은 생활하는 인간을 이해하는데는 부족하고 또 심리학적 인간해석은 인간의 정신생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심리적사실의 기본차원으로 간주되는 因果的 심리현상부터 검토할 것이다.

因果的 차원의 심리현상이나 심리활동은 결핍과 위기 또는 불안을 내포하는 심리현상이라 하겠다. 이 차원에서는 인간적 상황에서 결핍과 관계되는 방향으로 知的기능이 왜곡되기 쉽다. 이제는 고전적인 연구로 되어있는 Bruner와 Goodman (1947)의 연구는 결핍이 동전의 크기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것은 이 차원에서 知的심리현상의 표본이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하여 知覺과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장했다. 또 이 차원의 情的심리현상은 긴장과 긴장해소의 쾌감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의 情的심리현상이, 그리고 위기에 처했거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오는 불안이나 공포 또는 분노와 같은 원시감정도 이 차원의 심리적사실로 간주된다. 결핍이나 불안이나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강한 심리현상이므로 소위 욕구감소에서 동질정체를 하려는 동기가 이에 속한다. 둘째로 誘引的 차원의 심리적사실에는 비교적 객관적인 知的기능이 이루어지는 심리현상이 포함된다. 미리 어떤 동기적 선입견이 없으므로 인간의 존재적상황에 항등성이 있고 안정된 知覺이 이루어진다. Merleau-ponty의 비유를 들자면 노란색을 노랗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의 심리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차원에서는 지각된 심리적사실들이 호기심이라는 동기를 유발하고 Brentano (op.cit. zweiter Band, p.35)가 지적한

関心 ( Interesse ) 이 이루어지는 차원이다. 因果的 차원에서와는 달리 知的 기능이 동기적 기능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동기를 유발하는 관계에 있는 차원이다. 이 차원에서는 정열적이고 흥분과 기대감을 갖는 정적 심리현상이 수반한다. 학문이나 예술 또는 스포츠, 취미, 오락등을 즐기는 심리적 사실들이 이 차원의 심리현상에 속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끝으로 目標的인 차원은 어떤 目標을 정립하고 그를 향하여 노력하는 심리현상의 차원이다. 이때 目標 설정을 하는 知的 기능이 선행된다. 目標을 정립하는 知的 기능은 판단이다. 판단이란 취사선택을 하는 지적기능이다. 目標은 판단이란 지적과정을 통하여 판단하는 사람이 납득하고 진실이라 믿을 때에 그 구실을 하게 된다. 이렇게 目標이 형성되면 그 目標을 달성하거나 성취하기 위한 目標동기가 생긴다. 目標동기가 생기면 실천적으로 目標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그 도정에 가로놓여있는 많은 난관들을 극복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目標에 도달했을 때의 情的 심리현상을 Maslow (1968)는 頂上經驗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마치 目標로 삼았던 높은 산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의 느낌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갖게 되는 知的 심리현상이 지향하는 目標은 여러가지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것도 확신을 갖는 目標여야 하며 그에 의심을 갖는 경우에는 目標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 이같은 확신적인 目標을 갖게 하는 판단과정중에서 가장 신뢰할만한것이 논리적인 理性판단이다.

Kant는 이 理性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가장 믿을 수 있는 理念 ( Iden )을 얻을 수 있는 理性判斷을 검토했으며 이 理念이 심리현상의 目標이 되는 것이다. 誘引차원과 目標차원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유사성이 있다. 즉 대개의 경우 目標차원은 유인차원에서 발전한다. 知覺되어진 심리적사실이 호기심이라는 동기를 유발하며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같은 노력을 하는 사이에 상황적조건에서 판단을 거쳐서 目標이 형성된다. 이런 目標이 형성된 순간이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目標달성을 위한 동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目標적 차원의 심리현상은 인과적차원의 심리현상과 마찬가지로 目標이 형성된 이후에는 지적과정의 왜곡을 초래하기 쉽다.

즉 설정된 목표에 따라 지각되고 판단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결핍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심리현상이 모든 상황을 결핍과 관련시켜 지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표는 때로는 독선적일 수 있다. 목표가 아무리 독선적이라 하더라도 목표로서의 구실을 하는 한에서는 모든 심리현상은 그 목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목표가 잘못 판단되었을 때에는 그 심리현상은 본인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목표적 차원은 자유가 제한된 심리현상의 차원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심리적사실의 3개 차원의 특징을 약술 하였다. 여기서는 심리학에서의 연구결과를 解題 (Review)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심리적사실이 갖는 구조적골격을 이해하는 검토를 하는데 머문다. 앞으로 이 구조적골격에 비추어 심리학의 연구결과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나아가서 이 구조적 골격에서 빠진 연구분야의 가능성을 음미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간의 존재상황에 따른 심리적사실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의 존재상황은 물리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물리적상황은 동일한 상항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통제가 가능한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물리적 상황속에 있는 변수들은 심리적 사실들과 독립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물리적상황에 대한 심리적 사실들의 타당성은 물리적조건 변수의 동질성과 동일성에서 찾을 수 있다. 상황적조건을 동일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심리적사실을 복수시행행열 (occasional matrix)에서 관찰하고 각 시행간의 변산을 오차변수로 취급할 수 있다. 이같이 물리적 상황변수가 실험적 통제가능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 심리학적 실험에서는 주로 사물적상황속의 인간존재에 관한 심리적사실을 찾는 데서 부터 출발하였다.

Fechner (1860)의 정신물리학을 비롯하여 Wundt (1874)의 生理心理学은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였으며 현대심리학의 출발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물리적 사물의 상황적 변수와 관련된 심리적사실을 체계화 한 것이 일반심리학이다.

이에 반하여 사회적상황은 상황자체의 조건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회적 조건은 그에 상응되는 심리적인 의식속의 경험내용

을 제외하고서는 그 상황변인의 속성을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험자가 아무리 통제된 사회적상황을 제시 한다 하더라도 피험자에게 주어지는 의식속의 경험내용이 동일한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즉 두개의 동일한 사회적상황이 동일 하다는 객관적 평가의 기준이 없는 인간존재의 상황적 조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상황은 일종의 무명적(無名的)인 미지의 상황으로 주어지며 그 상황에 관한 인지적해석인 의식속의 경험적내용이 상황자체의 조건과 변수로 작용하고 이같은 경험내용에 지향하는 심리현상이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험적으로는 주어진 사회적상황에 관한 경험내용의 타당성은 피험자의 언어적 표현에 근거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상황의 타당성의 근거는 사회적합의( social consensus ) 이고 이 합의는 피험자들이 언어적으로 표현한 인지내용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동일인을 여러번 반복하여 동일한 사회적상황에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동일한 상황속에 여러 피험자들을 노출시켜 경험내용인 인지적 언어표현의 동질성을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상황에 관한 심리현상은 복수시행 행렬에서 보다 복수피험자 행렬에서 관찰하게 된다. 사회적상황에 대한 심리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심리학은 뒤늦게 발달하였다. Wundt는 주로 물리적 상황에 대한 경험내용을 관찰하는것을 실험심리학의 문제라 생각했고 이 경험적내용에 지향하는 심리현상은 경험적내용의 연합( association )이나 통각( aperception )으로 추론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사회심리학의 가능성을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Brentano 및 현상학자들이 지향적대존을 심리현상으로 규정하고 경험적내용에 지향하는 심리작용이 내적지각대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정의 하므로써 사회심리학의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Wundt의 사상은 심성속의 고정된( Beharrliches ) 것 또는 변화속에서 남아 있는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한 Kant( op.cit. p.236 )의 영향때문인것 같다. 따라서 Kant도 物自性( Ding an sich )을 인식하는 理性을 비판했지만 타인인식의 문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상황에서의 심리현상에 관한 접근은 훨씬 뒤떨어지게 되었다.

인간의 존재적상황이 사물적상황과 사회적상황으로 구분됨에 따라 의식속의 경험내용인 심리현상이 지향하는 대상에 구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인간존재의 상황조건에 따라 심리적사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의 본질과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것은 앞으로 사회심리학의 더 많은 발전이 있어야 규명될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심리현상을 분류하여 知·情·意로 나눈 각각의 심리현상들이 사물적상황의 심리적사실이나 사회적상황의 심리적사실에 공통될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심리현상이 실험적인 증거에서 知·情·意로 분류하는것 보다 더 타당하게 분류된다면 그 분류된 심리현상들이 사물적상황에서나 사회적상황에서 적용되 심리적사실의 분류에 해당될것이라는 점이다. 뿐만아니라 심리적사실의 차원에 있어서도 유층적으로 구조적골격을 이루는 것이 이 두 상황에 대한 심리적 사실에도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나 심리현상의 대상에 대한 지향에서는 두 존재적 상황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고 또 구조적 유층의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생길 것이라 짐작된다. 현재 심리학의 연구에서는 심리현상의 분류에서나 심리현상의 유층적 차원에서 이 두 존재적상황에서 나타나는 지향성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것 같다. 이는 아직 사회심리학이 심리적사실의 구조적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발달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Bergson, Henri. *Essai sur les donnés immediates de la conscience*. Paris, 1949.
- Berlyne, D.E., *Conflict, arousal and curiosity*, New York: 1960.
- Brentano, Franz. *Psychologie vom empirischen Standpunkt*. Leipzig, 1874, herausgegeben von Felix Meiner. Hamburg, 1971.
- Bruner, J.S., & Goodman, Cecile C., Value and need as organizing factors in percep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4, 1947, 42, 33-44.

- Fechner, Gustav Theodor. *Elemente der Psychophysik*, 1860.
- Harlow, H.F. Motivation as a factor in the acquisition of new responses.  
In: *Current theory and research in motivation: a symposium*. Lincoln, Neb. 1953.
- Kant, Immanuel. *Kritik der reinen Vernunft*. Riga, 1781, herausgegeben von Felix Meiner. Hamburg, 1956.
- Lersch, Phillip. *Aufbau der Person*, 7, Aufl. Munchen, 1956.
- Maslow, A. H.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1954.
- Maslow, A. H.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2 ed. Princeton, N.J.: Van Nos, 1968.
- Merleau-ponty, Maurice. *Phenomenologie de la Perception*. Librairie Gallimard, 1945.
- Sartre, Jean-paul. *Esquisse d'une Théorie des émotions*. Paris, 1939.  
Translated by Besnard Frechtman as *The Emotions: Outline of a Theory*. New York, 1948.
- Schutz, Alfred, *Der Sinnhafte Aufbau der sozialen Welt*. Wien; Springer-Verlag, 1932.
- Skinner, B. F. *Beyond Freedom and Dignity*. New York: Knopf, 1971.
- Tolman, E.C. *Purposive behavior in animals and me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32.
- Wundt, Wilhelm. *Beiträge zur Theorie der Sinneswahrnehmung*, 1862.
- Wundt, Wilhelm. *Völkerpsychologie*, erster Band, Stuttgart, Alfred Kröner Verlag. 1921.
- Wundt, Wilhelm. *Grundzüge der physiologischen Psychologie*, 1874.